

8. 병고침과 예수살기

A. 예수의 병고침

1. 너는 깨끗하다!-- 그 의미는?

- “허다한 무리”에서(1 절)=> “한 문둥병자”로(2 절). 산상수훈(5-7 장) 이후 삶의 자리로 전환. 한 사람은 대표적, 상징적 의미=> 모델. 많은 이들 중 하나만 깨끗해지면, 기적(비정상, 예외). 그러나 ‘깨끗하다’는 선언은 누구에게나 적용, 곧 새로운 세상이 도래.
- 문둥병(Hansen’s disease 를 포함한 모든 피부병)=> 사회/종교적 격리, 경계선을 의미. 당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문둥병은 신의 심판/저주(신 24:8-9; 민 12:10). Q. 누구의 눈에 “죄(罪)”인가?
- 주여!(κύριε). 마태복음에서는 참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쓰임(34 번)—마가복음(7:28, 한 번)

2. 백부장의 믿음이란? (8:5-13)

- 장면이 바뀌어, 가버나움으로. 주여(8:8).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백부장이 스스로 예수를 찾음.
- 결론. “네 믿은대로 될지라”(8:13; 9:29)=> “네 소원/뜻대로 될지라”(15:28=> 6:10; 26:42).
- 믿음=> 마 8:10; 9:2 (//막 2:5), 9:22 (//막 5:34), 9:29; 15:28; 17:20 (//막 9:29); 21:21(//막 11:22); 23:23
 - 믿음, 소원, 뜻/의지.
 - 이만한 믿음=>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남(중 혹은 자식)의 문제를 자기문제처럼 진지하게 고민.
 -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vs “내가 가서 고쳐주랴? (Am I to come and heal him?)”(8:7)=> 15:24. ‘가나안 여인과 딸’ (마 15:21-28). 예수는 이스라엘에만 보냄받았다고 주장(마 10:5-6; 15:24).

3. 베드로 장모의 화병 (8:14-17)

- 문둥병자, 백부장과 달리 예수가 친히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감.
- 열병? =>(울)화병.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에게 시중든(먹을 것을 차린) 예는 처음(καὶ ἠγγέθη καὶ διηκόνει αὐτῷ=> διακονέω, deacon, 집사). 강일상, <<마가복음의 기적이야기>>
- 역시 “손을 내밀어 대시고” (약수)=> 평화/화해의 제스처
- 결론. 예수는 “우리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어떻게 이해하나?
=>8 복이해(5:1-12), LXX Isa 53:4=> τὰς ἀμαρτίας ἡμῶν, 죄의 의미 (<http://saegilchurch.org/zbxe/16626>)
=>처음부터 읽으면, 모든 병/죄가 예수에게 넘어왔다는 뜻일텐데, ??? (오히려 그런 병/죄의 상황에 도전과 참여/저항, 새로운 삶의 모색)

B. 예수를 따른다는 말--(8:18-27)

1. 잘못된 그림 1 (Outsiders)

- 서기관—종교 지배계급으로 나쁜 평판(2:4; 5:20; 7:29ff).
- 예수를 선생으로 호칭 (8:17). Cf. 8:2, 5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 ‘선생’과 ‘주’는 제자를 구분하는 첫 단계. => 물론 주여, 주여하는 자들이 모두 제자는 아님. 7:21-22 => 26:22 vs 26:25)
- 여우...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눅 13:32)=>지배계급. 의미: 지배이데올로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는 않는다. (윌터 윈크, 죄의 의미) => 정체성과 행동윤리.

2. 잘못된 그림 2 (Insiders)

- 앞의 서기관과 달리, 이 사람은 “제자”며 예수를 “주”라 호칭(21 절)
- 장례의식을 거치지 못한 자는 저주받은 자(신 28:26)=> 부친을 장사지내는 것은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함에 미루어, 마땅히 칭찬들을 일. 참조. 왕상 19:19-21. 그런데...
- 그때 그때 달라요^^ 소명이 다르다.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마 19:16-30)=>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이면의 철학/복음/가치관은 한 가지=> 일관성!
-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라. ‘죽은 자’를 둘 다 문자적으로 읽을 수 없다 (산 자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 앞의 것은 상징적 의미.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살기)은 기존의 가치관과의 대립. [To] “bury one’s father” is standard idiom for fulfilling one’s filial responsibilities for the remainder of the father’s lifetime, with no prospect of his imminent death.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2007] 329). 초점은 제자도의 치열함=>취미생활이 아님.

3. 바다/폭풍—시련과 저항

- 바다(암—Ugarit 신화=> Tiamat/Marduk, 바벨론 창조신화)를 꾸짖음=> 고대근동신화에서 저항세력을 물리치는 신의 위엄; 마가복음에서 꾸짖음(1:25; 3:12; 4:39; 8:30, 32, 33; 9:25; 10:13, 48).
- 예수를 따른다함은 바다의 폭풍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다른 가치관과의 힘든 대립(7:24-27).

생각해 보기

1.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어떻게 이해하나?
2. 손을 내밀어 만지다(8:3). =>손쓰다.
 - 파괴/억압/불법 행위
 - 관용/용납/돌아봄(“reach out and touch”)